

# “논술 여전히 중요”

### 광주시교육청, 토론·논술 교육 동아리 결과 보고 워크숍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12월 17일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단위 학교 논술 교육 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2009학년도 단위 학교 논술 교육 동아리 활동을 돌아보고 아울러 2011학년도 대입 논술 시험 대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입 전형 제도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특히 많은 대학들이 정시 모집 전형에서 논술을 반영하지 않게 되어 상대적으로 논술의 중요성이 감소되었다. 또 2011학년

도에는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33개교로 올해보다 4군데가 줄었으며, 정시 모집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7개교(서울대, 대전가톨릭대, 영산전학대, 선문대, 수원가톨릭대, 인천가톨릭대, 서울교대)만이 논술을 치른다.

반면 면접·구술 고사는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반영 대학 수, 비중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모집에서 면접·구술 고사를 활용하는 대학은 122개교로 올해보다 4곳 늘고 반영 비중도 20% 이상 반영 대학이 98개교로 6곳 증가했다. 정시에서 면접·구

술 고사를 보는 대학은 105개교로 올해보다 2군데, 20% 이상 반영하는 대학도 33개교로 2곳 늘었다.

하지만 수시 모집이 전체의 61%를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여전히 논술은 중요하다.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논술 교육은 직접적으로 대입 논술 시험 대비에 도움을 주며 더 나아가 가서는 교수·학습 현장 개선을 통해 지식 경제 사회를 살아갈, 창조적 인간 양성에 기여하는 교수·학습의 모델로서 정착시켜야 할 때라 이번 워크숍이 논술 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순기 기자 ksk@eduyonhap.com



◆ 광주선광학교 학생들이 퓨전국악을 선보이고 있다.

### 2009학년도 e-NIE 활용 학교 워크숍 개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12월 18일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e-NIE 활용 학교 초·중·고 40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2009학년도 e-NIE 활용 학교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교실 수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주요 교육 시책 사업으로 교실 수업 개선 실적 적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e-NIE를 활용한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을 위해 한국언론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e-NIE 홈페이지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e-NIE 홈페이지는 교사와 학생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전국 56개 종합 일간지, 경제지, 지방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뉴스 콘텐츠와 수업 지도안을 제공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뉴스 검색, 저장 및 NIE 수업 지도안 작성용 전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교사가 적절하게 취사선택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NIE는 신문에 실린 정보를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다양한 신문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도록 하는 교수·학습의 한 방법이다.

# “잠자는 나를 깨운다”

### 전남공고, 교육과정 최우수학교로 선정

지난 16일 교과부는 2009년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올해에는 '학교 교육과정 분야'와 '학년·교과 교육과정 분야' 2개 분야로 나누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하는데, 학교교육과정 분야에서 일등초등학교, 용봉중학교 그리고 전남공고가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상 표창을 받게 된다.

교로 선정된 것어서 그 자부심이 대단하다.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은 매년 시·도교육청의 1차 심사를 거쳐 추천된 16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과부의 중앙심사위원단의 최종심사를 통해 전국의 20개 학교가 선정되고, 그 중 최우수학교를 선정한다.

금년도의 공모 주제는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우수학교'였다.

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던 점과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기능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취업률 최고학교를 달성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08년부터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사업을 통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우수사례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왔다.

조민철 기자 jmc@eduyonhap.com

일등초등학교는 '녹색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재구성하고 활동·체험 중심으로 축제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례로, 용봉중학교는 '학생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학생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 및 영어 동아리 활동'과 복구정 지원을 받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오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실현'에 주력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다.

특히 첨단산업설비 특성화학교인 전남공고(교장 김용희, 교과부장관상)는 전문계 고등학교로서는 드물게 선정된 케이스로서 전국 2000여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선발된 20개 우수고등학교 가운데 선정된 4개 전문계고등학교 중의 하나에 속한다.

따라서 전남공고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광주를 대표하는 고등학교이자 가장 우수한 전문계 고등학교

전남공고는 '3step 프로젝트를 통한 기업 맞춤형 전문기능인 양성'을 주제로 미래지향적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한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 사례를 가지고 응모하였다.

전남공고가 개발한 이 3step 프로젝트란 'S1(잠자는 나를 깨워 - 기초학력·인성·예절·잠재성 발굴지도), S2(앞으로 걸어가 - 진로지도), S3(오늘을 넘어 내일로! - 신학력력 맞춤형교육)'의 3단계로 편성하여, 진로지도 및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신학협약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공고는 그 동안 하계나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어학학습과정을 거쳐 선발된 30여명의 인원을 중국과 일본 등지에 보내는 국제

서광초등학교에서는 지난 9일, 학생 및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 서광초등학교 사랑나눔장터'를 열었다. 이는 경제가 어려운 요즘, 학생들이 근검절약하는 정신을 기르고 '가정에 잡들어 있는 물품을 재사용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자'라는 취지로 본교 강당(우정관)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날 행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최우수동아리로 선정된 남사도(남안골사랑나눔동우미)회원들과 각반 학부모 봉사팀이 협력하여 실시되었다. 물품은 학생들이 기증한 장난감과 학용품, 운동화, 유행이 지났지만 깨끗한 옷

### 광주선광학교 학예발표회

광주선광학교(교장 조순아)는 지난 11일 1년 동안 갖고 닦은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선보이는 학예발표회를 열었다. 행사는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전시부와 학생들의 숨은 끼를 선보이는 공연부으로 치러졌다.

식전 행사로 학교장의 인사말과 매주 수요일 치과진료로 도움을 주시는 치과선생님들과 무상으로 학교 앨범을 제작해준 사장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공연부은 초·중·고·전공과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총15팀과 특기적성 핸드벨부의 멈출 수 없는 끼를 발산하는 뜨거운 무대로 이루어졌으며 특별공연으로 교내 교사기타동아리를 통해 실력을 닦은 선생님들의 동요메들리 기타연주와 주체할

수 없는 매력을 뽐내는 신규 선생님들의 댄스공연이 있었으며 학부모님의 멋진 색소폰 연주는 무대를 더욱 빛나게 했다.

하전시부분은 공연이 이루어지는 강당으로 가는 길목에 지난 1년간의 추억이 담긴 학급사진을 전시하였으며 건물 내 복도와 계단에 방과 후 특기적성 부서별 작품을 전시하여 바라보는 이들에게 놀라움과 감탄을 연발하게 하였다.

또한 현장중심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탄생한 '꿈의 그린'을 통해 공예·도예·목공·원예·제과제빵 등 다양한 직업교육의 결과물들을 판매했다.

학생들은 이번 학예회를 통해 공연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공연을 준비하고 참여하며 큰 성취감을 맛보았으며 마음속에만 자리 잡고 있던 꿈과 희망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다.

조민철 기자 jmc@eduyonhap.com

### 광주서광초 사랑나눔장터 개최

### '교린수지(交隣須知)' 부산시지정 문화재 지정

등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로 꾸며졌다. 가격이 저렴하여 물건을 구입하려 온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나누는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행사에 총 수익금은 아름다운 가게 50만원, 대한 적십자사 20만원, 유니세프 30만원, 독거노인 세분 265,400원, 총 1,265,400원을 15일에 전달하여 더욱 보람되고 뜻 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안 쓰는 물건을 재사용하면서 절약의 의미를 되새기고 판매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여 이 기증한 장난감과 학용품, 운동화, 유행이 지났지만 깨끗한 옷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관장 김정규) 소장 귀중자료인 '교린수지(交隣須知 4권4책)'가 부산광역시 지정 예고·심의를 거쳐 문화재 제51호로 지정됐다.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관장 김정규)에서는 자리적으로 근접한 한·중·일 3국의 고문헌 중 새로운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자료를 발굴하여 학술적인 이용 및 영구적 보존 등 고문헌특성화도서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14일 도서관 소장 자료인 '교린수지(交隣須知 4권4책)'를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로 신청하였으며, 부산시청 문화예술 및 문화재위원의 '문화

재적 가치 및 문화재지정 여부·심사를 거쳐 10월 부산시지정 예고·심(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398호) 통과하고 12월 7일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 제51호로 지정됐다.

'교린수지'는 18세기 초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인을 위한 최초의 한국어 학습서로 일본 동경의국어대학 등에 소장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유일본으로 추정되고 있는 자료이다. 각권의 내용은 한국어·일본어로 대역(對譯)했으며 천문, 지리, 과실, 풍물, 언어 등 4책으로 일본 활자로는 부산에서 인쇄된 최초의 간행물로 추정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 잇따른 학교협박편지 경남교육청, 예방책 시달

경남남도교육청(교육감 권경호)은 지난 17일, 최근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편지를 발송하는 협박 편지가 유포되고 있다는 안문보도가 잇따르자 이에 대응되게나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협박편지를 받았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학교는 관할 경찰서 및 관할 지역교육청 관리과로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협박편지를 받은 학교와 피해가 있는 지에 대하여 확인중이고 해당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고 말하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도 차원에서 수사기관과 공조해서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Clean Energy의 선두주자, KIECO의 꿈은 그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1994년 100% 민간투자사업으로 설립된 우리 나라 경제 성장과 함께 세 손 KIECO가  
이제 KIECO는 Clean Energy의 400, 700, 1000억 원의 환경에너지로  
에너지 기업은 나라 발전의 원동력 에너지 공급으로 만드는 중입니다. 우리 KIECO는  
이 환경의 100%를 더 한 환경 위해 나가는 KIECO를 지켜주세요.

**KIECO**  
한국환경에너지주식회사